



해외지역정보

폴란드

EU 가입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늘어

2004년도 FDI, 신규 투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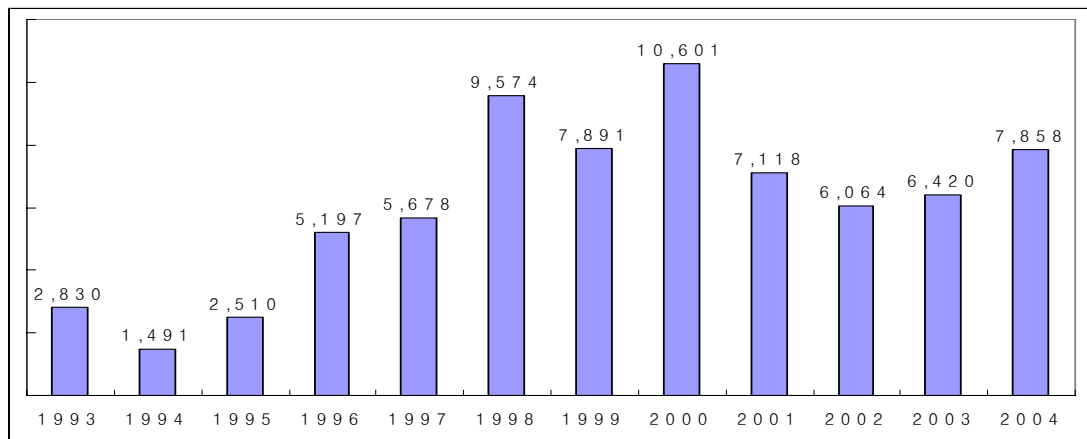
2004년도 폴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전년 대비 22.4% 증가한 78억 5,800만 달러에 달하였고, 2000년(106억

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¹⁾(CEE)에서 러시아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규모의 FDI를 유치하였으며, 매년 신규(greenfield)투자 및 제조업 부문으로의 FDI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0년대 중반 대우가 진출한

〈그림 1〉

폴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PAIIZ.

1) UNCTAD에 따르면, 2004년도 중동부 유럽(CEE) 19개 국가의 FDI 규모는 365억 달러에 달하며, 국가별 점유율은 러시아(27%), 폴란드(14%), 체크(13%), 헝가리(6%) 등인 것으로 추정됨.

〈표 1〉 2004년도 FDI 업종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업종	투자금액	구성비	증가율
제조업	3,251.5	41.4	9.7
운송기계	703.0	8.9	125.1
화학·의약	485.9	6.2	-14.8
금속	468.4	6.0	77.1
전기기계	450.6	5.7	15.9
비금속	304.9	3.9	-42.8
기계	218.0	2.8	30.7
제조	181.0	2.3	-22.2
플라스틱	165.3	2.1	-42.6
식품가공	135.3	1.7	-57.0
가구	101.1	1.3	-
섬유	32.8	0.4	-
목재	5.3	0.1	-96.7
가죽	0.0	0.0	-100.0
금융	2,115.3	26.9	-12.8
부동산	865.5	11.0	511.2
상업	848.7	10.8	184.5
건설	560.3	7.1	-
전력·가스·수도	507.8	6.5	61.4
농업	14.5	0.2	202.1
호텔·레스토랑	10.9	0.1	-70.2
서비스	3.8	0.0	-98.9
광업	1.6	0.0	-73.3
운송·창고·통신	-321.9	-4.1	-
합계	7,857.7	100	22.4

자료: PAIiIZ.

이후 우리 기업의 투자는 부진하였으나, 최근 LG, SK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폴란드 외국인투자청(PAIiIZ)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 형태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신규투자가 전년 대비 7% 증가하여 총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인 58%를 기록하였다. 반면, 민영화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2002년 36%, 2003년 22%, 2004년 17%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M&A는 약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폴란드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대부분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업종별, 국가별 투자 상세내역

투자 업종별로는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전년 대비 9.7% 증가한 32억 5,200만 달러로 총투자의 41.4%를 차지하였다. Toyota,

Volkswagen 등 자동차 기업의 투자확대에 힘입어 운송기계 부문은 전년 대비 125.1% 증가하였고, 제조업 총투자 중 8.9%를 차지하였다. 한편, 비제조업에서는 금융, 부동산, 상업 부문으로 FDI가 집중되었으며, 특히 부동산, 상업 부문은 각각 511.2%, 184.5%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15억 7,570만 달러를 투자하여, 14억 2,810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을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 누계액 기준으로는 프랑스(160억 2,610억 달러), 네덜란드(111억 5,420억 달러), 미국(101억 6,370억 달러), 독일(101억 4,950억 달러) 등의 순이었으며, EU 국가의 전체 투자 규모가 총투자의 약 74%²⁾를 차지하였다.

1993년의 193개에 불과하였던 100만 달

리 이상 투자기업도 2004년 말 현재 1,101개로 급증하였으며, 전 세계 36개국에 분포되어 있다. PAIIZ 통계에 따르면, 2004년도에는 Apollo Rida사와 Freace Telecom사가 각각 부동산과 통신 부문에 8억 달러, 4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건별 1, 2위의 투자규모를 기록하였다. 또한, Toyota, LG전자가 각각 2억 2,000만 달러, 1억 7,8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아시아 기업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인건비, 적극적인 정부 정책 등이 강점

제조업 부문에 대한 FDI가 증가한 이유는 첫번째로 노동력이 비교적 풍부하여 실질임금이 완만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폴란드 정부에 등록된 실업자 수

〈표 2〉 2004년도 주요 진출 외자 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번	투자회사	투자금액	투자등록국가	본사국가	업종
1	Apollo Rida	800	미국	미국	부동산
2	France Telecom	450	프랑스	프랑스	통신
3	LNH Holding N.V	390	네덜란드	인도	금속가공
4	BEG S.A.	356	프랑스	프랑스	건설
5	Vattenfall AB	305	스웨덴	스웨덴	전기가스
6	Toyota	220	벨기에	일본	자동차
7	IVAX Corporation	210	미국	미국	제약
8	Volkswagen AG	195	독일	독일	자동차
9	KBC Bank N.V.	192	벨기에	벨기에	금융
10	LG Electronics Inc	178	한국	한국	전자

자료: PAIIZ.

2) OECD의 FDI 계산 방식에 따르면, EU 이외의 지역의 국가가 EU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폴란드에 투자하는 것은 EU로부터의 투자로 집계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 등의 투자 규모가 과소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5억 달러를 상회하는 Toyota의 투자도 벨기에로부터의 유입으로 계상됨.

는 300만을 넘어서,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약 19%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임금 상승률은 2003년 2.0%, 2004년 0.8%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2004년에도 저렴한 인건비 효과로 FDI를 통해 14,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이는 2003년도 4,800개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두번째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 Toyota 합작법인(TPCA)과 Peugeot Citroen이 각각 체크, 슬로바키아로 진출을 결정하자, 폴란드 정부는 주변국과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의 일환으로 2004년 초 폴란드 정부는 법인세를 27%에서 슬로바키아와 비슷한 수준인 19%로 조정한 바 있다.

세번째는 2004년 5월 EU 가입에 따른 정치·경제의 안정으로 FDI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04년, 2005년 각각 28억 유로, 62억 유로에 달하

는 EU 기금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동 기금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물류 인프라 개발³⁾을 통해 유리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금년도 FDI 증가 전망

폴란드는 이미 2005년 1/4분기에도 LG, HP, Michelin⁴⁾ 등 14개의 기업으로부터 580백만 유로의 FDI를 유치하여 4,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FDI의 증가세가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신설한 LG전자 무하바 공장에서는 2,150여개의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되고 있어, 실업률 해소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금년 초 S&P와 Fitch사는 폴란드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희 원】

3) 정부는 고속도로망의 총연장거리를 현재 500km에서 2013년까지 약 2,000km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함.

4) 금년 초 프랑스의 Michelin사가 Olsztyn 지역의 공장 확장에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기로 결정함.